

2022년 12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경기북부지부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or 책을 읽고서
1 와이시티작은도서관/김경진	사이에서, 그림책 읽기/김장성/이야기꽃	그래. 때로는 삶이 그저 구멍이를 파고 메우는 것만 같아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만 같지? 하지만 그걸로 충분하단다.
2 화전작은도서관/임희정	인생의 허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김영민/사회평론	지나친 여가는 인간을 공허하고, 무료하고, 빈둥거리고 낭비하게끔 만든다. 노동을 없애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노동의 질을 바꾸는 것이 구원이다. 일로부터 벗어나야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을 즐길 수 있어야 구원이 있다. 구원은 비천하고 무의미한 노동을 즐길 만한 노동으로 만드는 데서 올 것이다.
3 햇빛21작은도서관/윤영연	현책방 기담 수집가/윤성근 지음/프시케의 숲	누군가에게는 흔하게 볼 수 있는 낡은 책 한 권이지만, 또 어떤 이에게는 일생을 통해 찾은 소중한 깨달음이기 때문이다.
4 고양작은도서관/심은경	나의 어린 왕자/ 정여울 /크레타	그들이 진정으로 찾고 있는 것은 아주 소박한 것입니다. 어린 왕자가 장미꽃 한 송이, 양 한 마리, 여우 한 마리만으로도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이 어린 왕자의 지혜고, 어른들이 너무 빨리 너무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동안 잃어버린 가치입니다. 진정 원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찾아야만 보이는 것'이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로 소중한 것은, 장미의 보이지 않는 눈물처럼 우리 가슴을 울립니다.
5 작은도서관웃고래/여은주	마음이 흐르는 대로/지나영/다산북스	나답게. 진실하게 살다 보면 그 속에서 나와 맞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또 거기서 진정한 소속감을 느끼게 되는 일도 생겨난다. 물론 그 과정에서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받아들이면 더 좋다
6 모당공원작은도서관/김정희	아버지의 해방일지/정지아/창비	고통이든 슬픔이든 분노든 잘 참는 사람은 싸우지 않고 그저 견딘다. 견디지 못하는 자들이 들고일어나 누군가는 싹꾼이 되고 누군가는 혁명가가 된다. 아버지는 잘 못 참는 사람이다
7 예다움도서관/백정희	인간실격/다자이 오사무/민음사	지금 저에게는 행복도 불행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지금까지 제가 아버지규환으로 살아온 소위 '인간'의 세계에서 한 가지 진리처럼 느껴지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8 하늘벗작은도서관/장희경	선량한 차별주의자/김지혜/창비	세상이 기울어져 있음을 생각하지 않고 평등을 찾다보면 불평등한 해법을 찾기 쉽다. 기울어진 땅에서 평행봉을 들면 평행봉 역시 기울어지는 것처럼.
9 마상공원작은도서관/김은미	일토당토 않고 불가해한 슬픔에 관한 1831 일의 보고서/조우리/문학동네	세상엔 온통 말이 되지 않는 일들뿐이지만 년 소수처럼 단단해질 거야. 절대 쪼개지지 않는 건 소수랑 탄소, 그리고 너야.
10 재미있는느티나무온가족도서관/이승희	불편한 편의점2/김호연/나무옆의자	나는 그래도 엄마 계란말이가 최고야
11 호수공원작은도서관/김연희	노마드랜드/제시카 브루더/엘리	사람들은 심지어 가장 혹독하게 영혼을 시험하는 종류의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힘겹게 싸우는 동시에 낙천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현실을 부정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보다는, 역경에 직면했을 때 적응하고, 의미를 추구하고, 연대감을 찾으려는 인류의 놀라운 능력을 증명해 준다.
12 온가족비전도서관/박정은	마음에 길을 내는 하루/장진희/샘솟는 기쁨	어쩌다 보니 가족도 보다 느림을 사랑하게 되었다 수풀에서 흘러나오는 달차근한 향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얀 종이에 꼭꼭 눌러 쓴 편지를 기다리며 변하지 않는 느림으로....

2022년 12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사무국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or 책을 읽고서
1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박서진	그래도 나답게/김유은/좋은북스	학원과 독서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던 날들이 시험에 떨어졌다고 해서 의미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 덕분에 나는 성숙해졌고, 실패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설령 내가 노력해온 일이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내 인생 자체의 실패는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 어떠한 새로움을 시도할 때, 조금 더 크게 생각할 수 있도록 성장한 것이다. (p.141) 소비 단식 과정을 솔직하게 기록한 책이다.
2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김진희	소비단식일기/서박하/휴머니스트	그 과정은 지출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알아가는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한 것 같다. 나도 이 책을 읽은 이후 물건을 살 때 한 번 더 고민하게 되었다. 단순히 지출만 기록하던 가계부를 내년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써 보려고 한다.
3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정예서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김수현/늘	관계가 영원하지 않음에 너무 오래 서글퍼하거나 너무 미리 겁낼 필요는 없다. 계절 내내 나무는 모습을 달리하지만 늘 그 나무인 것처럼, 강물은 늘 흐르지만 강은 여전히 강인 것처럼 누군가는 떠날 것이고 누군가는 올 것이며 당신은 여전히 당신이다.

2022년 12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서울지부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or 책을 읽고서

1	성산글마루작은도서관/ 장선덕	작별하지 않는다/한강/문학동네	눈은 거의 언제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 그 속력 때문일까. 아름다움 때문일까? 영원처럼 느린 속력으로 눈송이들이 허공에서 떨어질 때,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이 갑자기 뚜렷하게 구별된다. (p.58)
2	성산글마루작은도서관/ 박성은	작별하지 않는다/한강/문학동네	다섯 살 모습으로 내가 눈발에 앉아 있었는데, 내 뺨에 내려앉은 눈이 이상하게 녹지를 않더라. 꿈속에서 엄마 몸이 덜덜 떨릴 만큼 그게 무서웠다. 따뜻한 애기 얼굴에 왜 눈이 안 녹고 그대로 있나.(p.81)
3	성산글마루작은도서관/ 강연화	작별하지 않는다/한강/문학동네	이렇게 눈이 내리면 생각나. 내가 직접 본 것도 아닌데. 그 학교 운동장을 저녁까지 해매 다녔다는 여자애가. 열일곱 살 먹은 언니가 어른인 줄 알고 그 소맷자락에, 눈을 뜨지도 감지도 못하고 그 팔에 매달려 걸었다는 열세 살 아이가. (p.87)
4	성산글마루작은도서관/ 이영옥	작별하지 않는다/한강/문학동네	낮에는 공방에서 나무를 깎고, 밤이면 안채로 돌아와 구술 증언 자료들을 읽었어. 자료마다 다른 사망자들의 데이터를 대조해 확정했어. 오십 년 봉인이 해제된 후 접근 가능해진 미군 기록물들과 당시 언론 보도, 1948년과 1949년에 재판 없이 수감된 제주 수형인 명부와 보도연맹 학살 사이에서 사건들을 복기했어. 자료가 쌓여가며 윤곽이 선명해지던 어느 시점부터 스스로가 변형되는 걸 느꼈어. 인간이 인간에게 어떤 일을 저지른다 해도 더 이상 놀라지 않을 것 같은 상태..... 심장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가 이미 떨어져나갔으며, 움푹 파인 그 자리를 적시고 나온 피는 더 이상 붉지도, 힘차게 뿜어지지도 않으며, 너털너털한 절단면에서는 오직 단념만이 멈춰줄 통증이 깜빡이는.....
5	성산글마루작은도서관/ 김희영	작별하지 않는다/한강/문학동네	역사적 고통의 순간에 딱지가 생기고 잊혀지는 것을 건드리고 싶었다. 끔찍한 실수와 사고라도 덮어두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건드리고 마주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것이 지극한 사랑의 기억이라고.....
6	성산글마루작은도서관/ 신나미	작별하지 않는다/한강/문학동네	작별하지 않는다..... 작별인사만 하지 않는 거야. 정말 작별하지 않는 거야? 완성되지 않는 거야, 작별이? (p.192)
7	생글작은도서관/주영자	아버지의 해방일지/정지아/창비	올해 읽은 책 중 가장 재미있고 유쾌하고 따뜻하고 가슴 뭉클했으며 빨리 들듯 몰입하여 단숨에 읽어낸 책입니다. "아버지가 죽었다. 전봇대에 머리를 박고, 평생을 정색하고 살아온 아버지가 전봇대에 머리를 박고 진지 일색의 삶을 마감한 것이다."

2022년 12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총청지부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or 책을 읽고서

1	범지기9단지 달빛도서관/이주희	역사의 쓸모/최태성	역사에 대한 작가의 시점과 우리가 역사를 대하는 자세를 바로잡게 해준다. 역사가 삶이라는 문제의 완벽한 해설서라고 말하는 작가의 시선에 우리도 삶이라는 지나가는 역사를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한다.
---	------------------	------------	---